

간호사와 환자가 지각한 돌봄행위 중요도에 관한 연구

김 영 이* · 이 병 속*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돌봄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해온 현상으로서, 개인, 가족 및 집단 속에서 여러 가지 행위의 형태로 존재해 왔다. 다시 말해 돌봄이란, 인간의 가장 오래된 표현 형태로서 전문직 집단에서 비롯되어진 행위가 아니라, 일반 대중 속에서부터 이미 형성 발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Leininger (1981)는 돌봄을 간호만의 독특한 본질로 규정하면서 돌봄 개념을 간호의 통합적 개념으로 발달시킨 바 있다. 그는 돌봄이 간호 지식과 실무의 핵심으로서, 돌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간호 학문을 진보시키고 간호 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하며, 나아가 전문직으로서 간호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하였다. 간호학의 철학적 기초를 제시한 Watson(1985)도 오늘날 의학이 점차 기계화, 전문화되면서 비인간화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간적 돌봄을 보존하는 것이 간호와 건강 전문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간호현장에서는 이러한 돌봄

이 중시되지 않거나,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흔히 병원을 다녀온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간호사가 불친절하다”는 말을 듣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이들이 간호사로부터 기대했던 돌봄이 만족스럽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의료 기술의 발달로 기술적 측면의 간호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인간의 총체적 측면보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개별화되지 못한 간호가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애정, 1991). 또한 전 보건 의료서비스의 3/4이 돌봄임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경우 치료와 같은 가시적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경제논리에 근거한 병원 경영에서 뒤로 밀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간호사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져 돌봄은 단지 추상적 이상향이 된 것이 현실이다(Leininger, 1984). 이와 같이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망각되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최근 간호를 중심으로 여러 의료 전문직에서 돌봄을 새롭게 강조하고, 돌봄의 속성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Leininger, 1984; Sullivan & Deane, 1994; Hawthorne & Yurkovich, 1995).

돌봄은 감정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행동을 동반하게 된다. 즉, 돌봄은 감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정과 행동이 사고에 의해 연결되어 나타난 것이다 (Bevis, 1981). 또한 돌봄은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돌봄에 대한 지각을 고려함으로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Morse, Solberg, Neander, Bottorff & Johnson, 1990). 따라서 간호사가 환자를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서는 환자가 간호사에게 요구하는 돌봄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Leininger(1988)는 돌봄에 대한 전문의료인의 지각과 환자의 지각에는 서로의 문화적 불일치로 인해 커다란 격차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환자의 요구가 반영되고, 환자의 요구에 적합한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자가 지각하고 있는 돌봄의 실체나 가치 등에 대한 간호실무연구가 필요하다.

환자와 간호제공자의 돌봄 지각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환자가 지각한 돌봄(김애정, 1991; 박성희, 1993; 이병숙, 1997, 1998)이나 간호사가 지각한 돌봄(백옥희, 1993)을 각각 따로 연구한 것이 있으며, 두 집단을 함께 연구한 것으로는 두 집단이 가지고 있는 돌봄 의미를 비교한 질적연구(김정선, 김신정, 1992; 이윤미, 1995)가 있다. 돌봄에 대한 인간의 지각은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언어적 표현이나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김정선과 김신정, 199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돌봄을 받는 환자와 수행하는 간호사들이 돌봄을 각각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 가를 알기 위해, 국내 질적연구 문헌을 기초로 이병숙(1996b)이 선정한 27개 간호사 돌봄행위를 중심으로 이 행위에 대해 이들이 지각하고 있는 중요도를 확인,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임상현장이나 간호연구, 간호교육에 있어 환자의 요구에 맞는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현실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실무의 핵심인 돌봄행위에 대해 간호사와 환자가 지각하고 있는 중요도를 조사하고, 두 집단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사와 환자가 지각한 돌봄행위 중요도를 확인한다.
- 2) 간호사와 환자가 지각한 돌봄행위 중요도를 비교한다.
- 4) 간호사와 환자가 지각한 돌봄행위 중요도 순위의 차이를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돌봄행위: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이병숙, 1996b). 본 연구에서는 이병숙(1996b)이 개발한 돌봄 측정도구를 구성하는 간호사의 돌봄행위를 말한다.

II. 문헌 고찰

1. 돌봄의 개념

돌봄(caring)은 과거 수십 년 동안 간호의 핵심 개념으로 인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가 불확실한 채 care, nursing care, caring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간호 현장에서는 흔히 nursing에 대한 접미사로서 사용되어 왔다(김정선과 김신정, 1992). Webster 사전에 의하면 돌봄 즉, caring은 동사 care의 현재진행형으로 나타나 있으며, 한글사전에는 '돌보다'라는 동사가 명사화된 말로서 돌보는 행위를 나타냄과 동시에, 계속 돌보고 있다는 진행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돌봄'은 개념으로서의 caring과 진행형으로서의 caring을 가장 잘 전달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이병숙, 1996).

가족을 제외한 타인에 대한 돌봄은 초기 기독교 시대에 가난하고 병들고 무력한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봉사를 베푼 많은 여성의 행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타인에게 선을 행하도록 강조하는 종교적 가르침에 의해, 신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타인을 위한 돌봄으로 표현되었다(Ray,

1981). 중세에는 신화와 종교적 신념이 철학이나 정치, 경제, 사상에 영향을 주었고, 이 시기에도 여성은 일차적 돌봄 제공자로서 연민과 동정으로 돌봄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돌봄은 여성의 본능적 특징으로 간주하게 되었다(이윤미, 1995).

Sobel(1969)은, 인간을 돌보는 것은 한 인간의 타인에 대한 관심, 존경, 존중의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의 근원은 모든 고등 생물체의 모성애적이고 부성애적인 사랑이라고 하였다. Sobel에 의하면 돌봄의 본질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깊은 존중 및 존경심이다. Paterson과 Zderad(1976)는 돌봄행위를 자기 실현을 향한 움직임과 되어감이라는 과정으로 보는 실존주의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들의 실존주의적 관점은 Buber의 나와 너(I-Thou)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 이론의 요소에는 인간(환자와 간호사)의 목적 지향적(안녕과 더 나은 존재) 만남(되어감)과 인간과 사물의 상호 주관적인 교류(더불어 존재하는 것과 더불어 행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50년대 중반 Leininger(1981)는 횡문화적 간호연구를 통해 간호가 돌봄과 지지를 포함한 양육의 개념으로부터 나왔다고 전제하고, 돌봄을 감정이입적이며 지지적이고, 동정적이며 보호적 행동 특성을 통해 대상자를 도와주는 양육적이고, 기술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Watson(1979)은 돌봄을 간호의 치료적 대인관계 과정으로 보았으며, 돌봄이란 대인 관계를 통해서만 가장 효과적으로 실증되고 시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Watson은 간호를 구성하는 10개의 돌봄 요인(carative factors)을 강조하면서, 돌봄(carative)이란 말은 치료적(curative)이라는 말과 대조되는 용어로서 의학과 간호학을 구분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Orem(1997)도 돌봄을 남을 돕거나 조력해 주는 방법으로서 여기에는 대상자를 위해 실제적으로 행하고, 안내나 지침을 제공하고, 가르치고, 지지하고, 인간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최영희, 고성희 및 강신표(1992)의 연구에 의하면 돌봄은 출생으로부터 임종/사망에 이르는 우리 삶의 전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현상이며 삶의 원

동력으로서, 생의 과정 중 어느 한 순간에도 돌봄이 없는 순간은 없으며, 인생의 고비인 생, 노, 병, 사를 중심으로 돌봄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병숙(1996a)은 이러한 돌봄의 주요속성으로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련의 활동, 관심과 정성, 대인관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정 등을 들고 있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볼 때, 돌봄은 전문직 간호의 핵심 현상으로서 그 본질은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 및 존경이며, 또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돌봄은 두 사람의 상호작용으로서 두 사람의 성장, 발달을 가져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돌봄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람과의 상호작용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돌봄행위에 대한 선행연구

돌봄행위에 대한 연구를 방법론적으로 살펴보면, 환자나 간호사들의 경험을 조사한 질적 연구와 질문지법 및 Q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를 볼 수 있다.

질적연구에서는 가정간호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방적 면담법을 사용한 Henry(1975)의 연구를 살펴 본 결과, 간호사의 행위 중 “과외의 일(extra things)을 해주는 것”이 간호사 돌봄행위로서 가장 많이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yle, 1995에 인용). Brown(1981)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사가 하는 돌봄에는 사정과 감독, 이용 및 접근 가능성, 간호 절차, 정보의 제공, 정보를 인식하고 이를 사용하는 능력, 대인관계적 의사소통, 개인적 독립성에 대한 지지, 과외의 일을 해주는 것 등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들을 개인적 능력과 전문적 능력으로 구분하였다(Kyle, 1995에 인용). Reiman(1986)도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비돌봄(non-caring)의 생생한 경험을 ‘항상 바쁘고 능률적이다, 자기의 업무만을 수행한다, 거칠고 사람을 알잡아 본다, 반응이

없다, 환자를 물건으로 취급한다.’ 등의 5개 주제로 요약하였다.

고성희와 조명옥(1992)은 한국 전통적 사회에서의 돌봄행위로서 수발하다, 급하다, 예방하다, 고하다, 조언하다, 의논하다, 참다, 관심을 갖다 등의 39개 행위를 찾아 내었으며, 이를 부양, 보호, 알림, 존중, 절제, 관심, 정, 연민, 헤아림, 함께함, 나눔, 지지, 맘먹음, 기원, 처치 등 15개의 구성요소로 범주화하였다. 조명옥(1992)은 전통사회의 노인을 위한 돌봄행위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에서 노인을 돌보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위계질서를 지키는 행위이며, 돌봄의 내용으로는 몸의 편안을 도모하기 위한 돌봄,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돌봄, 영혼의 평안을 도모하는 돌봄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영희, 고성희 및 강신표(1992)는 한국 민족의 생활관 즉 한국사상이 돌봄행위의 근본 원리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한국 불교나 한국 유교의 전통이 지닌 공통적 특징으로서 인간애로 통하는 인간 존중 정신을 들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사상의 특징이 전통적 문화, 즉 돌봄 문화를 만든 것으로 보았다.

양적 연구에는 주로 돌봄행위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먼저 Larson(1981)은 암 환자가 지각하는 돌봄행위에 초점을 두고 CARE-Q 도구를 개발하여 돌봄행위에 대한 환자들의 지각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Mayer(1987)의 암 병동 간호사와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한 돌봄행위에 대한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는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장 중요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된 돌봄행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간호사들은 “환자의 말을 경청한다”를, 환자들은 “주사나 정맥주사를 놓는 법을 안다”를 가장 중요한 돌봄행위로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Komorita, Doehring and Hirchert(1991)의 연구에서는 환자들의 경우 ‘신체적 간호’를 가장 중요한 돌봄행위로 지각하고 있는 반면, 간호학 교수, 관리자, 임상 전문가들은 ‘안위’와 ‘신뢰성 있는 관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ssen과 Sjoden(1991)은 환자와 간호사가 지각한 돌봄에 대한 문헌연구에서 간호사의 경우 간호교육을 통해 가치 있는 것으로 학습된 것이 그대로 돌봄행위로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생물학보다는 사회 과학이나 행동 과학에 기초를 둔 돌봄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1995)은 내, 외과 병동의 간호사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자들은 ‘정직하고 명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실력 있는 임상적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돌봄행위로 들고 있는데 비해 간호사들은 표현적이고 애정 어린 행동을 가장 중요한 돌봄행위로 들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우리 나라의 돌봄에 대한 양적 연구로는 이병숙(1996b)의 환자 간호의 질 평가를 위한 돌봄 측정도구의 개발에 관한 연구와 이 도구를 사용하여 환자들의 돌봄 지각과 간호만족도를 비교한 연구(이병숙, 1997) 및 일개 종합병원 입원환자에 의해 지각된 돌봄행위 중요도에 대한 연구(이병숙, 1998)가 있다. 위의 문헌에서 개발, 사용된 도구는 환자가 간호사와 접촉하는 동안 지각한 간호사의 돌봄 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우리 문화에 맞는 돌봄행위 목록 27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접근가능성 및 가용성, 정서적 지지 및 정보제공과 보호적 환경제공 등의 세 요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 볼 때, 돌봄은 간호사가 하는 모든 행위의 근원으로 여러 간호행위 속에 내재된 있는 성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중요성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는 간호사와 환자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환자의 경우는 신체적, 기술적 돌봄행위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간호사는 심리적, 정서적인 돌봄행위를 더 중요시하고 있었다. 돌봄에 대한 연구는 외국의 경우 최근 양적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문화속에서 나타난 돌봄현상을 밝히기 위한 질적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으나, 양적 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광역시 소재 500병상 이상의 5개 종합병원 일반 간호단위(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정신과 등은 제외)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95명과, 해당 간호단위에 입원하고 있던 16세 이상 환자 340명이었다.

2. 연구 도구

간호사와 환자가 지각한 돌봄행위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로서, 이병숙(1996)이 개발한 환자간호의 질 평가를 위한 돌봄 측정도구의 27개 돌봄행위 문항을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 적절한 용어로 수정하여 만든 것이다. 본 도구의 27개의 돌봄행위 문항은 접근가능성 및 가용성 요인에 15문항, 정서적 지지 및 정보제공 요인에 8문항, 보호적 환경제공 요인에 4문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돌봄행위별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간호사와 환자 각 10명씩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거쳐 7점 Likert scale로 정하였으며, 점수화는 각 문항에 대해 '극히 중요하다' 7점, '매우 중요하다' 6점, '중요하다' 5점, '보통이다' 4점, '중요하지 않다' 3점, '매우 중요하지 않다' 2점, '극히 중요하지 않다' 1점으로 하였다. 개발당시 문항의 내용타당도 지수(CVI)는 1.00이었고,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 alpha는 .9578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 alpha는 연구대상에 따라 간호사의 경우 .9701, 환자의 경우 .9618로 나타났다. 도구의 각 요인별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간호사에게는 연령, 종교, 결혼여부, 동거 가족수, 최종학력, 임상경력, 근무부서, 입원경험, 입원 기왕력이 있는 가족 등에 대한 9개의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환자에게는 연령, 성별, 종교, 결혼여부, 동거 가족수, 최종학력, 직업, 입원경험 정도, 현 진료과, 간병인 유무 및 간호경력 등에 대한 11개 문항을 추가하였다. 설문지 전 문항의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예비조사 결과 평균 17분으로 나타났다.

3. 자료 수집

자료수집은 1997년 12월 10일부터 1998년 1월 31일에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간호부의 협조를 얻어 연구에 합당한 병동을 선정하고 해당 병동의 수간호사나 감독간호사에게 의뢰하여 간호사와 환자에게 설문지를 배부, 수집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간호사 356부, 환자 505부이었으며, 그 중 간호사 328(90.6%)부와 환자 375(74.3%)부가 회수되었다. 이중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한 간호사 295(81.5%)부, 환자 340(67.3%)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간호사와 환자가 지각한 돌봄행위 및 돌봄행위 요인의 중요도를 확인하고, 두 집단의 중요도 순위에 대한 분석을 위해 SAS를 사용,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간호사와 환자가 지각한 돌봄행위의 중요도를 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2) 간호사와 환자가 지각한 돌봄행위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t-test를 하였다.

<표 1> 각 요인별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간호사 : 295명, 환자 : 340명)

신뢰도	돌봄행위 요인	접근가능성 및 가용성요인	정서적지지 및 정보제공	보호적 환경제공	전체
Cronbach's α	간호사	.9468	.9288	.9226	.9701
	환자	.9336	.9153	.8550	.9618

- 3) 간호사와 환자가 지각한 돌봄행위의 중요도 순위의 관계를 보기 위해 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 4)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간호사와 환자가 지각한 돌봄행위 요인별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ANOVA를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 중 간호사의 연령분포는 21세에서 48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27.25세였으며, 24세 이하의 연령군이 113명, 38.6%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종교가 있는 간호사가 60.7%였으며, 미혼인 간호사가 68.8%를 차지하였다. 전문대를 졸업한 간호사가 81.8%였으며, 경력이 3년 이하인 간호사가 43.6%였다. 간호사의 근무지별로는 내과계 간호사가 34.8%로 가장 많았다. 입원경험에서는 간호사 자신이 입원한 경험은 있는 경우가 34.2%였으며, 가족 중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70.4%로 나타났다(표 2).

연구대상 환자의 연령분포는 16세에서 84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40.68세였으며, 4·50대가 4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 환자가 52.4%였으며, 종교가 있는 환자가 63.5%, 미혼인 환자가 78.8%를 차지하였다. 최종학력은 고졸이 51.2%였으며, 직업은 주부를 포함한 무직인 경우가 37.6%로 가장 많았다. 입원경험의 경우 2회이상인 환자가 53.5%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 입원한 진료과로는 외과계 환자가 45.9%였다. 현재 간병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91.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환자 자신이 간호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38.0%로 나타났다(표 3).

2. 돌봄행위의 중요도

간호사가 지각한 돌봄행위의 중요도를 먼저 돌봄행위 요인별로 보면, 접근가능성 및 가용성 요인은 평균평점 5.73(±0.83)점, 정서적지지 및 정

<표 2>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간호사 수=295)

항 목	구 분	명 (%)
연 령	21~24세	113 (38.6)
	25~29세	98 (33.4)
	30~34세	55 (18.8)
	35세 이상	27 (9.2)
종 교	없음	116 (39.3)
	있음	179 (60.7)
결혼상태	기 혼	92 (31.2)
	미혼	203 (68.8)
가족의 수	1 명 이하	80 (27.0)
	2 명	58 (19.7)
	3 명	59 (20.0)
	4 명	63 (21.4)
	5 명 이상	35 (11.9)
최종학력	전문대 졸업	239 (81.8)
	4년대 졸업 이상	53 (18.2)
임상경험	1~36월(3년)	127 (43.6)
	37개월 이상	164 (56.4)
현재 근무 진료과	내과계	101 (34.8)
	외과계	113 (39.0)
	산부인과	19 (6.6)
	기타	57 (19.6)
입원경험	없 음	194 (65.8)
	있 음	101 (34.2)
가족의 입원 경험	없 음	87 (29.6)
	있 음	207 (70.4)

Missing Data : 연령=2, 최종학력=3, 임상경험=4, 현재근무진료과=5, 가족의 임상경험=1.

보제공 요인은 5.56(±0.94)점, 보호적 환경제공 요인은 5.54(±1.09)점 등으로 나타났다. 전 항목에 대한 중요도의 평균평점은 5.65(±0.85)점이었다.

27개 문항중 간호사가 지각한 중요도가 가장 높은 돌봄행위는 '환자에게 주사나 처치시 조심스럽고 아프지 않게 하려 한다'로 평균 6.11(±0.97)점이었으며, 두 번째는 '환자에게 처치나 간호를 할 때 위생적으로 한다' 6.10(±1.15)점, 세 번째는 '환자가 아파서 고통받을 때 즉시 해결하려 한다' 6.08(±1.04)점이었다. 반대로 간호사가 지각한 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온 돌봄행위는 '건강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해 준다'로 평균 5.22(±1.32)점 이었으며, '환자에게 조용하고 안락한 환경을

〈표 3〉 환자의 일반적 특성 (환자 수=340)

항 목	구 분	명 (%)
연 령	19세 이하	19 (5.6)
	20~29세	66 (19.6)
	30~39세	60 (17.8)
	40~49세	78 (23.2)
	50~59세	80 (23.7)
	60세 이상	34 (10.1)
성 별	남 자	178 (52.4)
	여 자	162 (47.6)
종 교	없 음	124 (36.5)
	있 음	216 (63.5)
결혼상태	기 혼	268 (78.8)
	미 혼	72 (21.2)
가족의 수	1 명 이하	54 (16.0)
	2 명	65 (19.3)
	3 명	122 (36.2)
	4 명	55 (16.3)
	5 명 이상	41 (12.2)
최종학력	초졸 이하	43 (12.6)
	중 졸	64 (18.8)
	고 졸	174 (51.2)
	대졸 이상	59 (17.4)
직 업	없음(주부 포함)	128 (37.6)
	농업·공업	61 (17.9)
	상업·기타	96 (28.2)
	사무직·전문직	55 (16.3)
입원경험	1회	158 (46.5)
	2회이상	182 (53.5)
현재 입원 진료과	내과계	104 (31.4)
	외과계	152 (45.9)
	산부인과	29 (8.8)
	기 타	46 (13.9)
현재 간병해 주는 사람	없음	30 (8.8)
	있음	309 (91.2)
간호 경험	없 음	209 (62.0)
	있 음	128 (38.0)

Missing Data : 연령=3, 가족의 수=3, 현재 입원 진료과=9, 현재 간병해 주시는 분=1.

만들어 준다' 5.28(±1.29)점, '환자가 짜증을 낼 때 받아주고 진정시켜 준다' 5.33(±1.1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지각한 돌봄행위의 중요도를 먼저 돌봄 행위 요인별로 보면, 접근가능성 및 가용성 요인은 평균평점 5.16(±1.12)점, 정서적지지 및 정보

제공 요인은 4.72(±1.36)점, 보호적 환경제공 요인은 4.76(±1.43)점 등으로 나타났다. 전 27개 항목의 중요도 평균평점은 4.97(±1.15)점으로 전반적으로 간호사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환자가 지각한 중요도가 가장 높은 돌봄행위는 '나에게 처치나 간호를 할 때 위생적으로 한다'로 5.77(±1.40)점이었으며, 두 번째는 '내가 묻는 것에 성의 있게 잘 대답해 준다' 5.59(±1.48)점, 세 번째는 '내가 불편해서 부를 때는 즉시 와서 나를 도와준다'로 5.55(±1.57)점 등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중요도가 가장 낮은 돌봄행위는 '나의 손을 잡아 주거나 어깨등을 만져 준다'로 평균 3.80(±1.91)점 이었으며, '내게 조용하고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4.37(±1.74)점, '나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갈등을 들어주고 이해해 준다' 4.40(±1.7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와 환자가 지각한 돌봄행위의 중요도는 27개의 전 항목에서 모두 간호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 및 총점의 평균평점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4).

3. 돌봄행위의 중요도 순위

27개 돌봄행위중 간호사에 의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각된 것은 '환자에게 주사나 처치시 조심스럽고 아프지 않게 하려 한다'였으며, 이 행위는 환자의 경우 중요도 지각 순위 여섯 번째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경우 돌봄행위의 중요도 순위가 두 번째인 것은 '환자에게 처치나 간호를 할 때 위생적으로 한다'였으며, 이것은 환자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지각된 돌봄행위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경우 중요도 순위 세 번째는 '환자가 아파서 고통받을 때 즉시 해결하려 한다'였으며, 이것은 환자의 경우 일곱 번째로 순위로 나타났다. 돌봄 행위중 환자들에 의해 두 번째 중요한 것으로 지각된 것은 '환자가 묻는 것에 성의 있게 잘 대답해 준다'로서, 이것은 간호사의 경우 중요도 지각 순위 여섯 번째로 나타났다.

27개 돌봄행위중 간호사와 환자가 지각한 중요도의 순위 차가 가장 큰 것은 '환자에게 다정하고

〈표 4〉 간호사와 환자에 의해 지각된 각 돌봄행위의 중요도 (간호사 수=295, 환자 수=340)

돌봄행위	간호사		환자		t-값	P
	평균 및 표준편차	평균 및 표준편차	평균 및 표준편차	평균 및 표준편차		
【접근가능성 및 가용성요인】	5.73 (±0.83)	5.16 (±1.12)	7.1908	0.0000		
처치나 간호에 있어 환자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5.83 (±1.03)	5.42 (±1.48)	3.9820	0.0001		
환자의 세밀한 부분까지 자상하게 살펴준다.	5.37 (±1.19)	5.00 (±1.52)	3.4069	0.0007		
다정하고 친밀하게 환자를 대해준다.	5.55 (±1.14)	5.31 (±1.45)	2.2894	0.0224		
불편해서 부를 때는 즉시 와서 환자를 도와준다	5.92 (±1.09)	5.55 (±1.57)	3.3812	0.0008		
환자가 말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	5.82 (±1.05)	5.18 (±1.59)	5.8475	0.0000		
환자를 도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다.	5.93 (±1.05)	5.22 (±1.57)	6.5623	0.0000		
환자가 불만스러운 점을 말할 때에는 귀담아 들어준다.	5.80 (±1.10)	5.19 (±1.56)	5.6367	0.0000		
환자가 짜증을 낼 때 받아주고 진정시켜준다.	5.33 (±1.13)	4.64 (±1.59)	6.1446	0.0000		
환자가 감정을 표현할 때 잘 이해해 주고 공감해 준다.	5.55 (±1.08)	4.86 (±1.50)	6.5518	0.0000		
걱정과 근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5.52 (±1.11)	4.44 (±1.75)	9.1258	0.0000		
건강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해 준다.	5.22 (±1.32)	4.70 (±1.65)	4.3367	0.0000		
환자에게 처치나 간호를 할 때 위생적으로 한다.	6.10 (±1.15)	5.77 (±1.40)	3.1924	0.0015		
환자가 묻는 것에 성의있게 잘 대답해 준다.	5.88 (±1.07)	5.59 (±1.48)	2.7992	0.0053		
환자에게 주사나 처치시 조심스럽고 아프지 않게 하려한다.	6.11 (±0.97)	5.30 (±1.58)	7.7065	0.0000		
환자가 아파서 고통받을 때 즉시 해결하려 한다.	6.08 (±1.04)	5.27 (±1.61)	7.4538	0.0000		
【정서적지지 및 정보제공】	5.56 (±0.94)	4.72 (±1.36)	8.8849	0.0000		
환자에게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용기를 준다.	5.68 (±1.18)	5.08 (±1.73)	4.9826	0.0000		
환자의 처치나 간호 후에는 그 결과를 물어보고 확인한다.	5.76 (±1.11)	5.23 (±1.58)	4.8133	0.0000		
환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상담에 성의있게 응해준다.	5.57 (±1.16)	4.96 (±1.63)	5.2899	0.0000		
환자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자세히 알려준다.	5.47 (±1.23)	4.42 (±1.79)	8.4487	0.0000		
환자의 건강 상태나 문제에 대하여 알아 듣기 쉽게 설명해 준다.	5.65 (±1.13)	4.98 (±1.69)	5.7978	0.0000		
환자가 근심하고 걱정할 때 안심시켜 준다.	5.57 (±1.13)	4.86 (±1.69)	6.1287	0.0000		
환자의 손을 잡아 주거나 어깨나 등을 만져 준다.	5.36 (±1.19)	3.80 (±1.91)	12.0676	0.0000		
환자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갈등을 들어주고 이해해 준다.	5.42 (±1.17)	4.40 (±1.70)	8.6174	0.0000		
【보호적 환경제공】	5.54 (±1.09)	4.76 (±1.43)	7.6956	0.0000		
환자에게 조용하고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5.28 (±1.29)	4.37 (±1.74)	7.3063	0.0000		
환자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5.41 (±1.25)	4.83 (±1.72)	4.7389	0.0000		
환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5.78 (±1.20)	4.71 (±1.72)	9.0186	0.0000		
환자의 이야기를 정성껏 잘 들어준다.	5.71 (±1.11)	5.11 (±1.67)	5.2302	0.0000		
전 체	5.65 (±0.85)	4.97 (±1.15)	8.3705	0.0000		

친밀하게 대해 준다'로서, 간호사의 경우 중요도 순위 17위였으나 환자에게서는 5위로 나타나 12의 순위 차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환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로 간호사의 경우 10위이나 환자에게서는 20위로 나타나 10의 순위 차를 보였다〈표 5〉.

간호사와 환자가 지각한 돌봄행위 중요도 순위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Spearman 순위 상관계수가 0.8302(p=0.000)로, 두 집단의 중요도 순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 특성에 따른 돌봄행위 중요도

간호사의 특성에 따라 가장 중요하게 지각된 돌봄행위로는 대부분의 특성에서 '환자에게 주사나 처치시 조심스럽고 아프지 않게 하려한다', '환자에게 처치나 간호를 할 때 위생적으로 한다', '환자가 아파서 고통받을 때 즉시 해결하려 한다', '환자를 도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다', '불편해서 부를 때는 즉시 와서 환자를 도와준다' 등이 가장 중요한 돌봄행위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언

〈표 5〉 간호사와 환자에 의해 지각된 돌봄행위 중요도의 순위 (간호사 수=295, 환자 수=340)

돌봄행위	간호사	환자	순위차
환자에게 주사나 처치시 조심스럽고 아프지 않게 하려한다.	1	6	5
환자에게 처치나 간호를 할 때 위생적으로 한다.	2	1	-1
환자가 아파서 고통받을 때 즉시 해결하려 한다.	3	7	4
환자를 도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다.	4	9	5
불편해서 부를 때는 즉시 와서 환자를 도와준다	5	3	-2
환자가 묻는 것에 성의있게 잘 대답해 준다.	6	2	-4
처치나 간호에 있어 환자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7	4	-3
환자가 말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	8	11	3
환자가 불만스러운 점을 말할 때에는 귀담아 들어준다.	9	10	1
환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10	20	10
환자의 처치나 간호 후에는 그 결과를 물어보고 확인한다.	11	8	-3
환자의 이야기를 정성껏 잘 들어준다.	12	12	0
환자에게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용기를 준다.	13	13	0
환자의 건강 상태나 문제에 대하여 알아 듣기 쉽게 설명해 준다.	14	15	1
환자가 근심하고 걱정할 때 안심시켜 준다.	15	17	2
환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상담에 성의껏 응해준다.	16	16	0
다정하고 친밀하게 환자를 대해준다.	17	5	-12
환자가 감정을 표현할 때 잘 이해해 주고 공감해 준다.	18	18	0
걱정과 근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19	23	4
환자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자세히 알려준다.	20	24	4
환자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갈등을 들어주고 이해해 준다.	21	25	4
환자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22	19	-3
환자의 세밀한 부분까지 자상하게 살펴준다.	23	14	-9
환자의 손을 잡아 주거나 어깨나 등을 만져 준다.	24	27	3
환자가 짜증을 낼 때 받아주고 진정시켜 준다.	25	22	-3
환자에게 조용하고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26	26	0
건강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해 준다.	27	21	-6

※ 중요도 순위차는 간호사가 지각한 중요도 순위를 기준으로 하였음.

령의 경우 30대 초까지는 ‘환자에게 주사나 처치시 조심스럽고 아프지 않게 하려한다’, ‘환자가 아파서 고통받을 때 즉시 해결하려 한다’(6.09점) 등이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 후반 이상의 장년층에는 ‘불편해서 부를 때는 즉시 가서 환자를 도와준다’(6.33점)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특성에 따라 가장 중요하게 지각된 돌봄행위는 대부분의 특성 군에서 ‘나에게 처치나 간호를 할 때 위생적으로 한다’로 나타났으며, 일부 특성 군에서 ‘내가 불편해서 부를 때는 즉시 와서 나를 도와준다’ 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돌봄행위 요인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각 요인별 평균평점을 비교한 결과 간호사의 경우 접근가능성 및

가용성 요인에서 결혼상태($F=11.69, P=0.0007$)와 최종학력($F=4.60, P=0.0328$)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서적 지지 및 정보제공 요인의 경우는 연령($F=2.95, P=0.0332$)과 결혼상태($F=11.33, P=0.0009$) 및 최종학력($F=4.49, P=0.0350$)에 따라, 보호적 환경제공 요인의 경우는 결혼상태($F=10.01, P=0.0017$)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6).

환자의 경우는 접근가능성 및 가용성 요인에서 연령($F=3.31, P=0.0062$)과 결혼상태($F=11.69, P=0.0007$)에 따라, 정서적 지지 및 정보제공 요인에서는 연령($F=3.06, P=0.0102$)과 결혼상태($F=11.53, P=0.0008$)에 따라, 보호적 환경제공 요인에서는 결혼상태($F=5.76, P=0.0169$)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7).

<표 6>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별 돌봄행위 요인의 중요도

(간호사 수=295)

일반적 특성	접근가능성 및 가용성	정서적 지지 및 정보제공	보호적 환경제공	전 체
· 연 령				
21~24세	5.66 F=2.60	5.49 F=2.95	5.51 F=1.70	5.59 F=2.80
25~29세	5.63 P=0.0525	5.42 P=0.0332*	5.39 P=0.1671	5.53 P=0.0404*
30~34세	5.94	5.86	5.75	5.89
35세 이상	5.94	5.70	5.75	5.84
· 종 교				
없음	5.73 F=0.02	5.57 F=0.01	5.57 F=0.09	5.66 F=0.00
있음	5.74 P=0.8828	5.56 P=0.9201	5.53 P=0.7619	5.65 P=0.9917
· 결혼상태				
기혼	5.98 F=11.69	5.83 F=11.33	5.84 F=10.01	5.91 F=12.79
미혼	5.62 P=0.0007***	5.44 P=0.0009***	5.41 P=0.0017**	5.54 P=0.0004***
· 가족의 수				
1 명 이하	5.72 F=0.22	5.57 F=0.12	5.53 F=0.19	5.65 F=0.13
2 명	5.65 P=0.9280	5.56 P=0.9769	5.50 P=0.9428	5.60 P=0.9699
3 명	5.76	5.53	5.50	5.65
4 명	5.77	5.53	5.55	5.67
5 명 이상	5.79	5.66	5.69	5.73
· 최종학력				
전문대	5.79 F=4.60	5.62 F=4.49	5.61 F=4.71	5.71 F=5.19
4년대 졸업 이상	5.51 P=0.0328*	5.31 P=0.0350*	5.25 P=0.0309	5.42 P=0.0235*
· 임상경험				
1~36월(3년)	5.64 F=2.94	5.46 F=3.09	5.49 F=0.80	5.57 F=2.83
37개월 이상	5.81 P=0.0874	5.66 P=0.0800	5.60 P=0.3711	5.74 P=0.0936
· 현재 근무 진료과				
내과계	5.73 F=0.25	5.59 F=0.14	5.53 F=0.82	5.56 F=0.29
외과계	5.76 P=0.8591	5.57 P=0.9345	5.66 P=0.4859	5.69 P=0.8321
산부인과	5.81	5.59	5.60	5.71
기타	5.66	5.49	5.39	5.57
· 입원경험				
없음	5.70 F=1.21	5.50 F=2.40	5.48 F=1.74	5.61 F=1.85
있음	5.81 P=0.2727	5.68 P=0.1221	5.66 P=0.1883	5.75 P=0.1754
· 가족의 입원 경험				
없음	5.76 F=0.06	5.54 F=0.05	5.60 F=0.28	5.67 F=0.02
있음	5.73 P=0.8078	5.57 P=0.8160	5.53 P=0.5995	5.65 P=0.8768

* P<0.05, ** P<0.01, *** P<0.001

V. 논 의

본 연구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와 돌봄을 받는 환자가 지각하고 있는 간호사 돌봄행위의 중요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27 개 전 항목에 대한 중요도 평균평점은 간호사 5.65점, 환자 4.97점으로 나타나 간호사가 지각한 중요도가 환자가 높았다. 중요도 순위에서는 두 집단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요도 순위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상관계수가 0.83으로 나타나, 두 집단 순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간호사가 지각한 돌봄행위의 중요도가 환자의 것보다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사들이 간호에 대한 신념과 열정을 지니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서 고무적인 것으로 해석되나, 환자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돌봄의 전문적인 제공자로서 간호사들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중 홍보가 필요하다

〈표 7〉 환자의 일반적 특성별 돌봄행위 요인의 중요도

(환자 수=340)

일반적 특성	접근가능성 및 가용성	정서적 지지 및 정보제공	보호적 환경제공	진 체
· 연 령				
19세 이하	4.66 F=3.31	4.29 F=3.06	4.42 F=1.85	4.51 F=3.27
20~29세	4.80 P=0.0062**	4.26 P=0.0102*	4.44 P=0.1029	4.59 P=0.0067**
30~39세	5.32	4.83	4.82	5.10
40~49세	5.31	4.82	4.73	5.08
50~59세	5.20	4.87	4.92	5.06
60세 이상	5.46	5.18	5.25	5.35
· 성 별				
남 자	5.19 F=0.24	4.71 F=0.01	4.77 F=0.07	4.99 F=0.08
여 자	5.13 P=0.6225	4.72 P=0.9309	4.73 P=0.7961	4.95 P=0.7773
· 종 교				
없 음	5.15 F=0.04	4.75 F=0.14	4.77 F=0.02	4.97 F=0.00
있 음	5.17 P=0.8432	4.70 P=0.7082	4.75 P=0.8770	4.97 P=0.9580
· 결혼상태				
기 혼	5.26 F=8.98	4.85 F=11.53	4.85 F=5.76	5.07 F=10.57
미 혼	4.81 P=0.0029**	4.24 P=0.0008***	4.40 P=0.0169*	4.58 P=0.0013**
· 가족의 수				
1 명 이하	5.24 F=0.55	4.68 F=0.35	4.75 F=0.71	5.00 F=0.49
2 명	5.15 P=0.6980	4.71 P=0.8421	4.76 P=0.5837	4.96 P=0.7406
3 명	5.21	4.80	4.77	5.02
4 명	4.97	4.55	4.51	4.96
5 명 이상	5.20	4.69	5.00	5.02
· 최종학력				
초졸 이하	5.44 F=1.33	4.93 F=0.53	4.79 F=0.59	5.19 F=0.86
중 졸	5.24 P=0.2638	4.69 P=0.6600	4.93 P=0.6218	5.03 P=0.4627
고 졸	5.08	4.65	4.66	4.89
대졸 이상	5.12	4.78	4.81	4.97
· 직 업				
없음(주부 포함)	5.15 F=0.70	4.70 F=0.62	4.65 F=0.38	4.94 F=0.50
농업·공업	5.14 P=0.5546	4.86 P=0.6018	4.81 P=0.7678	5.01 P=0.6829
상업·기타	5.28	4.76	4.84	5.06
사무직·전문직	5.01	4.52	4.79	4.83
· 입원경험				
처 음	5.24 F=1.31	4.83 F=1.89	4.87 F=1.90	5.06 F=1.83
두번이상	5.10 P=0.2526	4.62 P=0.1703	4.66 P=0.1694	4.89 P=0.1770
· 현재 입원진료과				
내과계	5.25 F=0.84	4.86 F=1.16	4.92 F=1.27	5.09 F=1.15
외과계	5.09 P=0.4711	4.61 P=0.3263	4.61 P=0.2834	4.88 P=0.3309
산부인과	5.26	4.92	4.90	5.10
기 타	4.99	4.53	4.58	4.79
· 현재간병해 주시는 분				
없 음	5.18 F=0.01	4.67 F=0.04	4.76 F=0.00	4.96 F=0.00
있 음	5.15 P=0.9139	4.72 P=0.8504	4.75 P=0.9586	4.96 P=0.9585
· 간호경험				
없 음	5.12 F=0.75	4.71 F=0.03	4.73 F=0.15	4.94 F=0.35
있 음	5.23 P=0.3886	4.74 P=0.8677	4.79 P=0.7017	5.02 P=0.5528

* P<0.05, ** P<0.01, *** P<0.001

다고 사료된다.

돌봄행위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각된 것은 간호사의 경우 ‘환자에게 주사나 처치시 조심스럽고 아프지 않게 하려한다’였으며, 환자는 ‘나에게 처치나 간호를 할 때 위생적으로 한다’로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돌봄행위 요인에 따라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지각한 요인이 두 집단 모두 ‘접근가능성 및 가용성’ 요인으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간호사에게 환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자신의 간호요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마음 편히 간호를 받을 수 있는 돌봄행위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Larson(1984)의 암환자가 지각한 돌봄행위의 중요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주사나 정맥주사를 놓을 줄 알며 의료기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안다.’가 가장 중요하게 지각된 돌봄행위로, 이병숙(1998)의 일개 대학병원 입원환자가 지각한 간호사 돌봄행위의 중요도 연구에서 ‘처치나 간호를 할 때 위생적으로 한다’가 가장 중요한 돌봄행위로, 돌봄행위 요인별로는 접근가능성 및 가용성 요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Essen과 Sjoden(1991)의 환자와 간호사의 돌봄 지각에 관한 연구에서는 환자의 경우 정직하고 명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능력 있는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돌봄행위로 들었고, 간호사는 표현적이고 애정 어린 행동을 가장 중요한 돌봄행위로 들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부 차이가 있다. Essen과 Sjoden(1995)이 정신과와 내·외과 환자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돌봄행위의 중요성과 실제 발생하는 돌봄행위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환자들의 경우 설명과 촉진, 신뢰성 있는 관계형성 및 모니터와 추후관리를, 간호사의 경우는 안위와 접근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제외한 정신과 병동을 대상이 포함되어 진료과에 따라 중요하게 인지하는 돌봄행위가 다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상의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은 돌봄행위의 중요도에 대한 환자와 간호사의 지각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그 중요도 순위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가 인지하고 있는 돌봄행위의 비중이나 중요도가 환자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일차적으로 간호사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환자들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여 이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는 돌봄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직 간호사의 관점이나 전문적 판단에 대해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가장 중요하게 지각된 돌봄행위로는 간호사의 경우 임상경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 초년생의 경우는 ‘환자에게 주사나 처치시 조심스럽고 아프지 않게 하려 한다’를, 3년 이상의 경력자들은 ‘환자가 아파서 고통받을 때 즉시 해결하려 한다’를 가장 중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간호사의 돌봄 경험에 대한 Astrom, Norberg and Hallberg(1995)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사들이 기술적 과업이나 일상적 업무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기는 경력이 1년 내지 3년 뒤였으며, 1년 내지 3년 동안은 주사나 수액주입과 같은 기술적이고 치료적 과업에 고정이 되어 있어 마치 이런 기술적인 업무가 끝나면 간호업무도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 따라서는 내과계나 산부인과계의 경우 ‘환자에게 주사나 처치시 조심스럽고 아프지 않게 하려한다’가, 외과계의 경우는 ‘환자에게 처치나 간호를 할 때 위생적으로 한다’를 가장 중요한 돌봄행위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Astrom, Norberg 및 Hallberg(199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들은 외과 간호사에게 돌봄은 일차적으로 환자의 신체적 욕구 즉, 검진, 음식, 주사, 통증완화, 개인 위생간호 등을 충족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고, 내과 간호사에게는 질병 과정에서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환자의 경우 대부분의 특성에서 ‘나에게 처치나 간호를 할 때 위생적으로 한다’를 가장 중요한 돌

봄행위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 중 60대 이상 고령 집단에서는 '내가 불편해서 부를 때는 즉시 와서 나를 도와준다'로 나타났다. 이는 조명옥(1992)이 전통사회의 노인을 위한 돌봄행위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에서 노인을 돌보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위계질서를 지키는 행위로서 노인은 위계가 높으므로 제일 먼저 가장 좋은 물질을 제공 받는다고 보고한 것과 연관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환자들이 간호사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본적인 간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서, 간호교육에서나 임상실무에서 환자들의 요구가 우선될 수 있도록 간호 실무를 개선하고 이러한 사항이 간호교육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간호사는 환자와의 지각의 차이를 더욱 좁히기 위해 실질적 돌봄행위에 있어 환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듣고, 수용하고, 해결해주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실무의 핵심인 돌봄행위에 대해 간호사와 환자가 지각하고 있는 중요도를 조사하고, 두 집단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은 대구광역시 소재 500병상 이상의 5개 종합병원 일반 간호단위(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정신과 등 제외)에 근무하는 간호사 295명과 여기에 입원하고 있는 16세 이상의 성인환자 340명이였다. 자료수집 도구는 27개의 돌봄행위 목록으로 구성된 7점 Likert 타입의 설문지로서,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사용된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간호사의 경우 $\alpha=.9701$ 이였으며, 환자는 $\alpha=.9618$ 이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997년 12월 10일부터 1998년 1월 31일이였다. 자료분석은 SAS를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및 Spearman rank correlation 등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간호사가 지각한 돌봄행위 전 항목 중요도의 평균평점은 5.65점, 환자가 지각한 중요도 평균평점은 4.97점이였으며,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은 돌봄행위는 간호사의 경우 '환자에게 주사나 처치시 조심스럽고 아프지 않게 하려 한다'였으며, 환자의 경우는 '나에게 처치나 간호를 할 때 위생적으로 한다'로 나타났다.
- (2) 돌봄행위의 중요도 순위는 간호사에게서 가장 높은 돌봄행위는 '환자에게 주사나 처치시 조심스럽고 아프지 않게 하려 한다'인데 비해 환자의 경우는 '환자에게 처치나 간호를 할 때 위생적으로 한다'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중요도 순위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순위상관계수는 0.8302로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가장 중요하게 지각된 돌봄행위로는 간호사의 경우 대부분의 특성 군에서 '환자에게 주사나 처치시 조심스럽고 아프지 않게 하려 한다', '환자에게 처치나 간호를 할 때 위생적으로 한다', 등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의 경우도 '나에게 처치나 간호를 할 때 위생적으로 한다', '내가 불편해서 부를 때는 즉시 와서 나를 도와준다'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간호사가 지각한 돌봄의 중요도가 환자가 지각한 돌봄의 중요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간호사들이 돌봄행위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열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간호사들이 지각한 돌봄행위 중요도의 순위와 환자가 지각한 돌봄행위 중요도의 순위가 높은 상관관계로 나타난 것은 비교적 고무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간호사의 돌봄행위의 중요도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줄이고, 환자의 요구에 부응한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앞으로 돌봄의 제공자로서 간호사들은 자신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 실무의 발전과 질적인 환자간호를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돌봄행위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둘째, 돌봄에 대한 중요도 지각과 함께 실제 실행 정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간호사 돌봄행위의 실행 정도가 환자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고성희 (1995). 노인의 민간 돌봄에 대한 연구 :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을 중심으로-. 대한간호, 34(3), 69-84.
- 고성희와 조명옥 (1992). 소설 「임격정」에 나타난 병과 돌봄, 최영희, 강신표, 고성희(편집). 간호와 한국문화(223-281). 서울: 수문사.
- 고성희, 조명옥, 최영희 및 강신표 (1990). 문화간호를 위한 한국인의 민간 돌봄에 대한 연구 : 출생을 중심으로. 간호학회지, 20(3), 430-458.
- 김강미자 (1996). 입원 노인을 돌보는 가족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3(2), 247-258.
- 김남선 (1993). 성의 현상으로 본 여성의 돌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명애와 고성희 공역 (1995). 간호이론. 서울: 현문사.
- 김애정 (1991). 간호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에서 환자가 인지하는 돌봄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애정과 김문실 (1993). 간호학생이 지각한 돌봄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5(1).
- 김정선과 김신정 (1992). 입원아동과 간호사가 지각한 돌봄에 대한 연구. 간호학회지, 22(3), 297-315.
- 문정순 (1997). 간호연구. 서울: 신광출판사
- 박성희 (1993). 간호사의 돌봄에 대한 환자의 느낌.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행순 (1995).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공자와 의료이용자의 태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백옥희 (1993). 간호사의 돌봄 능력과 자아개념과의 상관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숙 (1996a). 돌봄의 개념분석. 간호학회지, 26(2), 337-344.
- 이병숙 (1996b). 환자간호의 질 평가를 위한 돌봄(caring) 측정도구의 개발. 간호학회지, 26(3), 653-667.
- 이병숙 (1997). 간호사의 돌봄과 간호에 대한 환자만족도의 관계. 계명간호과학, 1(1), 37-47.
- 이병숙 (1998). 일개 대학병원 입원환자가 지각한 간호사 돌봄행위의 중요도. 계명간호과학, 2(1), 35-48.
- 이선옥과 김영임 (1993). 기초간호과학II.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이소우, 김주현, 이병숙, 이은희 및 정면숙 (1997). 간호이론의 이해. 서울: 수문사.
- 이윤미 (1995). 간호사와 환자가 경험한 돌봄의 의미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성옥 (1996). 돌봄에서의 신체적 접촉의 의미. 간호학탐구, 5(1), 92-121.
- 조명옥 (1992). 전통사회의 노인을 위한 돌봄행위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최영희, 강신표, 고성희(편집). 간호와 한국문화(287-443). 서울: 수문사.
- 최남희 (1997). 미래사회와 Caring : 간호학적 측면. 대한간호학회 춘계 학술대회 기초발제.
- 최영희, 고성희 및 강신표 (1992). 문화간호를 위한 한국인의 민간 돌봄에 대한 연구 :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최영희, 강신표, 고성희(편집). 간호와 한국문화(447-555). 서울: 수문사.
- 한상진 (1997). 미래사회와 Caring : 사회학적 측면. 대한간호학회 춘계 학술대회 기초발제.
- Astrom, G., Norberg, A., & Hallberg, I. R. (1995). Skilled nurses' experience of

- caring.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11(2), 110–118.
- Bevis, E. O. (1981). Caring : A Life Force, M. Leininger(Ed.),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Proceedings of Three National Caring Conferences(49–59). New Jersey: Charles B. Slack, Inc.
- Boyle, J. (1981). An Application of the Structural-Functional Method to the phenomenon of Caring, M. Leininger (Ed.),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Proceedings of Three National Caring Conferences(37–47). New Jersey: Charles B. Slack, Inc.
- Essen, L., & Sjoden, P. (1991). Patient and staff perceptions of caring : review and replicat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6, 1363–1374.
- Essen, L., & Sjoden, P. (1995). Perceived occurrence and importance of caring behavior among patients and staff in psychiatric, medical and surgical ca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1, 266–276.
- Gardner, K. (1981a). Patients' and staff nurses' Perceptions of supportive Nsg. Behavior : A Preliminary Analysis, M. Leininger(Ed.),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Proceedings of Three National Caring Conferences(109–113). New Jersey: Charles B. Slack, Inc.
- Gardner, K. (1981b). The Meaning of Caring in the Context of Nursing, M. Leininger (Ed.),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Proceedings of Three National Caring Conferences(69–79). New Jersey: Charles B. Slack, Inc.
- Gaut, D. A. (1981). Conceptual Analysis of Caring : Research Method, M. Leininger (Ed.),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Proceedings of Three National Caring Conferences(17–24). New Jersey: Charles B. Slack, Inc.
- Hawthorne, D. L., & Yurkovich, N. J., Science, technology, caring and the professions : are they compatible? J. of Adv. Nurs., 1995, 21, 1087–1091
- Komorita, N. I., Doehring, K. M., & Hirschert, P. W. (1991). Perceptions of caring by nurse educator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0(1), 23–29.
- Kosowski, M. M. R. (1995). Clinical learning experiences and professional nurse caring : A critical phenomenological study of female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4(5), 235–242.
- Kyle, T. V. (1995). The concept of caring : a review of literatu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1, 506–514.
- Larson, P. J. (1984). Important nurse caring behaviors perceived by patients with cancer. Oncology Nursing Forum, 11(6), 46–50.
- Leininger M. (1981a). The Phenomenon of caring : Importance, Research Questions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M. Leininger(Ed.),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Proceedings of Three National Caring Conferences(3–15). New Jersey: Charles B. Slack, Inc.
- Leininger, M. (1981b). Cross-Cultural Hypothetical Functions of Caring and Nursing Care, M. Leininger(Ed.),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Proceedings of Three National Caring Conferences(95–107). New Jersey: Charles B. Slack, Inc.
- Leininger, M. (1981c). Some Philosophical, Historical and Taxonomic Aspects of Nursing and Caring in American Culture,

- M. Leininger(Ed.),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Proceedings of Three National Caring Conferences(133-143). New Jersey: Charles B. Slack, Inc.
- Leininger, M. (1984). Care : The Essence of Nursing and Health, M. Leininger(Ed.), Care : The Essence of Nursing and Health(3-15). New Jersey: Slack, Inc.
- Leininger, M. (198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Nursing. Orlando, FL: Grune & Stratton, Inc
- Mangold, A. M. (1991). Senior nursing students' and professional nurses' perceptions of effective caring behaviors :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0(3), 134-138.
- Marriner, A. (1994a). Nursing Theorists and Their Work : Jean Watson(148-162). St. Louis: Mosby-Year Book, Inc.
- Marriner, A. (1994b), Nursing Theorists and Their Work : Madeleine Leininger(423-444). St. Louis: Mosby-Year Book, Inc.
- Mayer, D. K. (1987). Oncology nurses' versus cancer patients' perceptions of nurse caring behaviors : A replication study. Oncology Nursing Forum, 14(3), 48-52.
- Morse, J. M., Solberg, S. M., Neandeer, W. L., Bottorff, J. L., & Johnson, J. L., Concepts of caring and caring as a concept. Adv Nurs Sci, 1990, 13(1), 1-14.
- Newman, M. A., Marilyn Sime, A., Corcoran-Perry, S. (1991). The focus of the discipline of nursing. Advances in nursing Science, 9, 1-6
- Orem, D. E. (1997). Views of Human Beings Specific to Nursing. Nursig Science Quarterly, 10(1), 26-31.
- Parse, R. R. (1981). Caring From a Human Science Perspective, M. Leininger(Ed.),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Proceedings of Three National Caring Conferences(129-132). New Jersey: Charles B. Slack, Inc.
- Paterson, J., & Zderad, L. (1976). Humanistic Nurs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16-23.
- Ray, M. A. (1981). A Philosophical Analysis of Caring Within Nursing, M. Leininger (Ed.),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Proceedings of Three National Caring Conferences(25-36). New Jersey: Charles B. Slack, Inc.
- Reiman, D. J. (1986) Non-caring and caring in the clinical setting : patients' descriptions. Topics of Clinical Nursing, 8 (2), 30-36.
- Sobel D. E. (1969). Human Caring. American Journal of nursing, 69(12), 2612-2613.
- Sullivan, J. L., & Deane, D. M., Caring : Reappropriating Our Tradition. Nursing Forum, 29(2), 1994, 5-9.
- Watson, J. (1981). Some issues related to science of caring or nursing practice. Caring : An Essential Human Need, Proceedings of Three National Caring Conferences(61-67). New Jersey: Charles B. Slack, Inc.
- Watson, J. (1985). 간호학 : 돌봄과학의 철학적 이해. (김명자, 정영 역. 1995. 서울: 현문사)
- Widmark-Peterson, V. von Essen, L. Lindman, E., & Sjoden, P. O. (1996). Cancer Patient and staff perceptions of caring vs clinical care.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 10(4), 227-233.

Abstract

Key concept : Caring behavior

Importance of Nurses's Caring Behaviors as Perceived by Staff Nurses and Patients

Kim, Young Yi* · Lee, Byoung Sook*

Nurse's caring behaviors are essential to help patients cope with their health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ortance of nurse's caring behaviors as perceived by staff nurses and patients. The subjects were 295 staff nurses and 340 patients from five medical centers in Taegu.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Dec. 10, 1997 to Jan. 31, 1998. The tool for this study was a 7 point Likert type scale with 27 caring behaviors developed by Lee(1996). Cronbach alpha of the tool was .9701 in staff nurses and .9618 in patients. Data were analyzed with SAS using t-test, ANOVA and Spearman rank correlation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average score of perceived importance of nurse's caring behaviors for the 27 items was 5.65 in staff nurses and 4.97 in patients.
2. The most important caring behaviors perceived by the nurses was 'Nurse gives painless and cautious injection and treatment for patients' and for the patients, 'Nurse gives hygienic treatment and nursing care'.
3. The caring behavior which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ranks of perceived importance by staff nurses and patients was 'to treat the patient with tenderness and friendship'.
4. The 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ranks of importance perceived by staff nurses and patients was 0.8302.

With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staff nurses could be recognized to have much enthusiasm and passion about caring. It is suggested that nurses let the public know about the nurses' caring roles. In the future, research to investigate the actual practice of nurses' caring behavior is necessary.

* Taegu Catholic University Hospital, Keimyung University